

廣州李氏會報



<p>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p>	<p>讀書可以 悅親心 독서가 이 열친심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p> <p>勉爾孜孜 惜寸陰 면이 자자 석촌음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p> <p>老矣無能 徒自悔 노의 무능 도자회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p> <p>頭邊歲月 苦駸駸 두 변 세 월 고킴침침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p>	<p>遺子滿籛金 유자만영금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준다해도</p> <p>不如教一經 불여교일경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p> <p>此言雖淡薄 차언수담박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p> <p>爲爾告丁寧 위이고정녕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p>
----------------------------	--	---

2023년도 제3차 대종회 임원회의 개최



2023년 10월17일 10시 30분. 대종회 지하 회의실에서는 임원 33명 중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현안들이 많았던 관계로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는데, 대종회 회장의 개회 선언과 더불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상정된 안건 및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 ① 제1호 의안 광주이씨 대종회 취업규칙(안) 제정의 건
- 좀 더 검토 후 차기 임원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함
- ② 제2호 의안 퇴직 임원에 대한 퇴직금 등 처리에 관한 건
- 퇴직 임원에 대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미지급하고
- 연혁집 편집위원회에 대하여는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고, 편집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원안 의결
- ③ 제3호 의안 대종회 본관(광릉빌딩) 리프트 설치의 건
- 공과금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 시행하기로 원안 의결
- ④ 제4호 의안 강남구 삼성동 소재 수도빌딩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참여

- ⑤ 제5호 의안 임대료 장기체납자 처리 상황 보고의 건
- 임차인 장기체납자 강제조치에 따른 결손 예상 보고
- ⑥ 제6호 의안 대종회 2024년도 예산편성 방침 보고의 건
- 2024년도 예산편성은 균형예산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법은 규약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토록 함

임원 회의가 개최되기 전 10월 11일, 11시 30분에는 각 지파 종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회의에 상정할 의안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제반 의안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과 함께 모든 의안들이 잘 진행되어, 대종회가 진일보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 소재 수도빌딩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참여의 건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깊은 관심과 함께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대종회 상근 임원 추석 성묘

추석 명절을 맞아 6일간의 연휴가 지나고, 대종회 상근 임원들은 2023년 10월 6일(금) 아침 일찍부터 선대조 묘소 성묘에 나섰다.

성묘는 추석 같은 명절이나 한식(寒食) 같은 절기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 손질하고 살피는 일인데 먼저 하남시 덕풍동 소재 시조비(仁華李氏) 묘소에 참배를 드린 후, 성남시로 자리를 옮겨, 하대원동 소재 둔촌(諱集) 선조와 청백리공(諱之直) 선조묘소에 들러 참배를 드렸다.

영천 시조고위 묘소를 당연히 다녀와야 하나, 연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다녀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부득이 세 일사에 제례를 모시기로 하였다.



2023년도 선조 세일사 봉행 일정표

歲一祀					
구분	일 자(음력)	2023년(양력)	위 치	연락처	
시조 생원공(휘 당)	10월 2일	11월 14일(화)	경북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 121	02) 735-1720	
시조비 (인화이씨)	10월 4일	11월 16일(목)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 24-1		
둔촌선생(휘 집)	10월 5일(오전)	11월 17일(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청백리공(휘 지직)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1		
사인공(휘 장손)	10월 5일(오후)	11월 17일(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대사간공(휘 극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3-11		
관찰사공(휘 예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8		02) 2212-5227
광원군(휘 극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		02) 595-5656
좌통례공(휘 극건)	10월 10일	11월 22일(수)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산 55-1		02) 2212-5227
충희공(휘 인손)	10월 6일	11월 18일(토)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237-1		010) 8242-1910
참판공(휘 극기)	10월 8일	11월 20일(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산 33	02) 2212-5227	
광천부원군(휘 극증)	10월 7일	11월 19일(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34-1	02) 472-8209	
목사공(휘 지유)	10월 7일	11월 19일(일)	경기도 하남시 향동(고골) 산 64	010) 5203-3427	
문숙공(휘 지강)	11월 둘째주 일요일	11월 12일(일)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리 67-2	010) 2582-6928	
광릉부원군(휘 극배)	10월 12일	11월 24일(금)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산 12-4	02) 3426-1096	
십운과공(휘 자령)	시조비 세일사후 첫 일요일	11월 19일(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97	010) 6338-6547	

2023년도 제12회 강동백일장 시상식 개최



2023년 10월 20일 오후 5시. 강동문화원 소강당에서는 제12회 둔촌백일장 시상식이 있었다. 둔촌백일장은 광주이씨 대종회(회장 주영)가 후원하고 강동문화원이 주최하는 백일장으로 강동지역을 향관으로 두신 고려말 대학자이며 관료이고 효행을 몸소 실천하신 둔촌 이집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배우고 기리기 위해 미래의 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백일장으로 강동문화원에서 매년 심혈을 기울여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종회 주영회장이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용두 상임부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대독하고, 충희공 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 종회 재석 회장 외 10개 지파 종회장 및 집행임원들이 함께하였다. 또한 이수희 강동구청장, 강동구 구의회 조동탁 의장, 강동문화원 임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수상자를 축하하고 자리를 빛내주었다. 금년도 백일장에는 강동구를 비롯하여 송파, 광진, 하

남은 물론이고 제주도, 전남 여수, 경남 통영, 충북 제천 등 전국에서 문학동아리 회원, 초·중·고학생 단체, 개인 등 640여 명이 신청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혼란, 의자, 인공지능, 생명의 땅, 갈등의 둔촌 이집선생을 기리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폭 넓은 글제를 선정하였다. 수상자 명단은 광주이씨회보 2023년 8월호(제390호)에 발표하였다.

대중회 회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廣州이씨 대중회 회장 이주영입니다.
자연은 변함없이 오곡을 살찌워 결실을 맺게하고, 온 들과 산을 단풍으로 물들이며,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공모전으로 대체했던 우리 「둔촌 백일장」도 다행히 재난의 상황이 종식되어,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많은 문학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일장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2회 둔촌 백일장」 시상식을 갖게 됨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행사를 주관하시며, 본 작품집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강동문화원 신동명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수희 강동구청장님, 조동탁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 대표님들께 감사드리며, 전국에서 백일장에 참여하여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백일장은 고려말 대학자이신 둔촌 이집 선생의 학문과, 숭고하신 가르침의 뜻을 선양하고, 전국에서 문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문학도들에게, 능력과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강동구청, 강동문화원과 함께 우리 廣州이씨 문중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문학은 언어를 예술적 표현의 제재로 삼아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여, 인간과 사회를 진실되게 묘사하는 예술의 한 분야로서, 언어를 통해 인간의 삶을 미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서는, 훌륭한 심사위원님들에게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로서, 더욱 분투

노력하여 훌륭한 문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곳 강동구는 둔촌선생 생가터, 선생의 학문과 올곧은 정신을 기리는 구암서원터, 요승 신돈을 피해 숨어 지내시던 둔굴 등, 둔촌선생과 관련된 많은 유적이 있어서, 선생의 일과 유혼이 숨 쉬는 곳입니다. 저희 광주이씨 문중에서는, 마음의 고향에서 행해지는 본 백일장 행사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어, 훌륭한 문학 작가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신동명 원장님, 그리고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 10. 20

광주이씨 대중회 회장 이주영

지파총회 소식

총회공종회

■ 총회공(諱 仁孫) 선조 추석 성묘 다녀오다

광주이씨 총회공종회(회장 경래)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긴 연휴가 지나고, 2023년 10월 6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에 소재한 총회공(諱 仁孫) 선조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하였다.

이날 코스모스가 한들거리고 들녘에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여주의 하늘은 맑고 화창한 가운데 총회공종회 경래 회장을 비롯하여 산하 광릉부원군파, 문경공파, 광천부원군파, 광원군파, 좌의정공파 종회 회장 및 종회 집행 임원, 문경공 21대 종손 광희 등 많은 종인들이 함께하여 엄숙하게 성묘하였다.

총회공 종회 경래 회장의 헌작으로 모든 참례자들은 단헌 단배로 참배하였다. 성묘를 마친 후손들은 음복과 덕담을 나누며 선조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추석 성묘를 위해서 준비에 애써준 총회공종회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총회공(휘 인손) 묘소 2023년도 추석 성묘

광릉부원군파종회

■ 광릉부원군파종회 종인 한마음 축제 성황리에 종료

오곡백과가 무르 익어가는 만추의 계절, 광릉부원군파 종회에서는 2023년 10월 12일(목)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만나 뷔페 하우스」에서 제5회 광릉부원군파종회 종인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다.

광릉부원군파종회에서는 2년을 주기로 축제를 개최하여 왔는데,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하여 4년여 만에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축제에는 대중회 주영 회장을 비롯하여 용두 상임부회장, 대중회 재진 전 회장, 총회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좌의정공파종회 충교 회장,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 좌통례공파종회 택수 회장, 총회공종회 용식 전 회장, 총회공종회 종

성 전 회장 대행, 좌통례 총용사 경무공 종회 형래 회장, 대중회 독립유공자 유족회 용위 회장, 대중회 결재 전 총무 이 밖에도 성우이자 탈렌트 종구 현종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는 문수 총무의 진행으로 개회식과 국민의례, 내빈 소개, 봉수 회장의 대회사 그리고 축사에는 대중회 주영 회장을 비롯해서, 대중회 재진 전 회장, 용두 상임 부회장, 총회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성우 겸 탈렌트 종구 현종, 그리고 격려사에는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으로 부터 행사 축하 메시지가 있었다.



광릉부원군파 종인 한마음 대축제

이후 광릉부원군파종회 집행부 소개와 6계 공계 종회장 소개가 있었고 이어서 감사패, 공로상,

장수상 수여식이 있었다.

감사패 수상자는 대전 해주목사공 종회 항재 회장, 공로상에는 종회 발전에 공로가 많았던 정래 대의원, 그리고 올해 97세로 무병장수 중인 득수 현종에게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부상과 함께 장수상이 수여되었다.

이어서 문경공파종회 종민 총무이사의 광릉부원군파 파조 행적 소개가 있었는데, “국가의 주석이며 백관의 거목이셨던 광릉부원군 파조”를 주제로 할아버님의 행적을 소상히 소개하여 참석 종친으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리

고 시 낭송에는 근재 현종, 구호 삼창에는 종봉 화수회 총무의 구령에 맞춰 참석자 모두 힘차게 연호하였다. 1부 행사는 폐회식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이어서 2부 행사에는 여흥시간을 가졌는데 장기자랑 및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끝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종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금 번 행사에 정성껏 협찬금을 출연(出捐)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광릉부원군파 포천 이곡 종회 한음상공(諱 德馨)묘소 참배

광릉부원군파 포천 이곡종회(회장 병환)에서는 2023년 10월 12일 한음상공 묘소를 찾아 선조님께 참배를 드렸다. 이곡 종회에서는 이날 광릉부원군파 종인 한마음 축제를 마치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소재 “한음상공 선조 묘소에 20여 명의 종인이 방문하였다. 일행은 정성껏 준

비한 주과포를 진설한 후 좌의정공파종회 시하 총무로부터 한음상공 선조의 업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예의를 갖추고 참배를 드리며, 공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였다.

다만 주위에 동고상공(諱 浚慶) 묘소도 함께 참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비단 이곡 종회뿐만 아니라 광이 후손이라면 반드시 참고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광릉부원군파 종회 총무 문수 책 -



광릉부원군파 포천이곡종회 한음상공 묘소 참배

문경공파종회

■ 2023년도 문경공(諱 克堪) 555주기 세일사 봉행



문경공(휘 극감) 555주기 불천위제 봉행

문경공파종회(회장 경수)에서는 10월 23일(음력 9월 9일), 조선시대 문종을 번성시키고 나라의 초석을 굳건하게 다지신 광주이씨 선조님들의 정신을 이어 받들고, 종원들과 화목을 다지는 송조의 계절을 알리는, 봉광성군(封廣城君) 시문경공(諡文景公) 파조의 서세 555주기 세일사를,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 90-1 번지 묘전에서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황금 들녘에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깊어가는 가을 날씨에, 전국 경향 각지에서 약 100여 명이 본·방손들이 참석하여 송조의 마음을 크게 높였다. 특히 대종회 주영 회장, 용두 상임부회장,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광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성

호 회장,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좌의정공파종회 충교 회장,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 좌통례공파종회 택수 회장,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 광원군파 도정공계 신임 종찬 종회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상임이사들이 참석하였으며, 또한 멀리 부산, 고창, 익산, 전주, 음성에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종인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날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문장과 풍절이 용동하고, 도덕과 경세제민이 풍부하시어 국사라 칭하여 지신 분으로, 우리 후손들은 선조님의 도덕과 경세제민의 정신을 이어 받아, 항상 겸손하고 종회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여야 한다 “고 하였고, 대종회 주영 회장은 “문경공 후손으로 묘전에서 제례를 처음 모시게 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면서, 조선조 초기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는데 크게 기여하신 선조님과 형제분들의 그 정신을 이어 받아, 자랑스런 광이 문종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오늘의 세일사가 되길 기원한다” 고 하였다. 또한 광희 문경공 21대 종손은 “항상 묘역 관리에 힘써 주시는 충주청장년회 회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고 하였다. 특히 문경공 18대손이며 충주지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종배 의원이 국정감사 등 바쁜 일정으로 불참함에 따라, 부인께서 참석하여 “아름답고 축복받은 날씨에 선조님의 명예에 훼손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는 후손이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며, 우리 모두가 더욱 더 남들이 부러워하는 광이의 가족이 되자” 하였다.

문경공파종회 종민 총무는 공의 행장을 소개하

면서 자세한 내용은 광리회보 10월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대신 구한말 전주이씨 종정경 이명익이 찬한 신도비문의 일부를 소개하였다.

「세조 6년(1460) 문경공께서 좌승지로 재임하실 때, 선위사(宣慰使)로 명나라 사신을 영접할 일이 있었다. 명나라 사신인 장녕(張寧)이 감히 거만하여 홍제원(弘濟院)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세자는 어찌 명조(明詔)를 봉영(奉迎)치 아니하느냐” 하니 공께서 말하기를 “군자(君子)는 사람의 갖추지 못한 것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능하지 못한 것을 책(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지금 세자의 나이가 어려서 예를 익히지 못하여, 착오(差誤)가 있을까 두려워서 감히 조서(詔書)를 봉영치 못한 것입니다 “하니, 장녕 사신이 말하기를 ” 세자(世子)의 나이 십 여세라 사배고두(四拜叩頭)하고 조서를 받드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 하느냐 “하자 공께서 말하기를 ”대인은 구태여 고집하지 말라 “하고 모화관(慕華館)에 인도하였다. 그러나 장녕 사신이 또 험박적으로 명령하기를 ” 주상은 보행으로 조서를 봉행



문경공 555주기 세일사 봉행을 마치고

하라 “하며, 이는 고황제(高皇帝)의 제체(制體)라 하므로, 공께서 대답하기를 주상(主上)은 대궐 안에서 성장하여 걸음을 배우지 아니하였고, 또 책에 이르기를 조보(朝步)는 자주한다 하였으니, 이를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는 곧 보연(步輦)이라, 사람이 메고 가는 것이다” 하니, 장녕 사신이 보연으로 봉영토록 하였다. 이 일로 명나라 사신 장녕은 공에 대해서 용의(容儀, 의례에 맞는 태도)가 뛰어나게 다르고, 비록 연소(年少)는 하나, 밖으로 나타나는 그 빛나는 재주와 언사가 민첩하

고, 몸가짐이 단정하고, 용모가 엄연하고 마음이 넓고 조용함에 찬탄하여 마지 않았다.」

이날 제례 초헌에는 대종회 주영 회장, 아헌에 좌통례공파종회 택수 회장, 종헌에는 문숙공파종회 용중 회장이 헌작을 하고, 축에는 종길 현종, 집례에는 영재 문경공파종회 감사, 집사에 종덕, 종욱, 승수, 성수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특히 금년도부터 세일사 제례 준비를 충주지역 청장년회 및 충주지역 며느리 모임에서 상차림부터 마무리까지 정성껏 해주기로 하였다. 승조 정신의 의미

와 모범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린다. 또한 먼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모든 제례 참례자에 행운이 깃든 나날이 되길 바라며, 이날 향축금을 봉헌해 주신 대종회를 비롯한 각 지파 종회에 감사드린다. 제례가 끝난 후에는 재실 이봉재 옆 농막에서 준비된 음식과 주류로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종원간 담화와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보내고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문경공파종회 총무 종민記

■ 문경공 손 정재공(諱 守貞) 519주기 세일사 봉행

정재공종회(회장 京洙)는 2023년 10월 15일 11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정재공(諱 守貞) 묘전에서 서세 519주기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공께서 영면해 계신 이곳은, 1504년 갑자사화에 형제들과 함께 참형당하고 버려진 시신을 공의 장인께서 수습하여, 훗날 또 어떤 화를 당할지 몰라, 깊은 산골에 모셨기 때문에 깊고 깊은 산골이었다. 아직도 큰 길에서는 한참을 들어와야 하는 깊은 산중이기는 하나, 다행히 자동차가 들어올 정도의 도로폭이 넓어지고 시멘트로 포장되어, 후손들이 오고 가기에 많이 좋아졌다.

또 도로에서 다시 묘소에 이르는 길은 경사도가 높아 너무 가파르고 길도 없는지라, 이번 기회에 새로이 목조계단을 설치해서, 후손들이 조금은 편하게 묘소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날은 계단 완공을 고하는 고유제를 먼저 올리고 세일사를 봉행하였다. 세일사 봉행에는 대종회 주영 회장,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승덕재종회 상훈 회장, 동고종회 근배 회장 등 정재공 직손 30여 명이 참례를 하였다.

세일사를 마친 종친들은 음복과 제사음식을 함께 나누며 돈독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를 빌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많은 후손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승덕재 손 용관 현종과 경사로 계단 설치공사를 1주일여 하는 동



정재공 선조 519주기 세일사 봉행

안 매일 나와서 공사를 지켜봐 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양호당 손 화래 현종께 감사를 드린다.

공의 자는 간중(幹仲)이고 휘는 수정(守貞)이며, 호는 정재(貞齋) 또는 소한재(素寒齋)이니, 성종 정유(1477)년 5월 6일 광양군(廣陽君 諱 世佐)의 넷째아들로 탄생하였다.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선생에게서 배워 재기(才器)와 학술(學術)로 사우(師友)간에 추앙하여 존경함을 받았으며,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 선생과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 선생과는 가장 젊은 벗으로서 제일 가깝게 의리로 사귀었다.

연산 신유(1501)년 생원진사시에 장원하고, 같은 해 23인 중 장원(壯元)으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예문관 검열, 승정원 주서, 봉상시 주부를 거쳐, 홍문관 부수찬에 뽑혀 동학교수와 세자시강원 사서, 지제교를 겸하였다. 연산 무오(1489)년 무오사화에 온 집안이 귀양가는 화(禍)를 당하였으며, 갑자사화(1504)에 종조부(從祖父)인 좌의정공(左議政公 諱 克均)과

부친인 광양군(廣陽君 諱 世佐) 형제(兄弟)가 참형을 당하고, 5월 13일 공의 4형제가 다 함께 참형(斬刑)을 당하니 향년 28세였다. 이때 공의 큰 아들 윤경(潤慶 崇德齋公)은 7세였고, 둘째 아들 준경(浚慶 東阜相公)은 6세로 충북 괴산 청안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중종반정으로 설원(雪冤)되어, 도승지 겸 홍문관 부제학에 증직되었고, 명종조에 이르러 둘째 아들 동고상공(東阜相公 諱 浚慶)의 현달(顯達)로, 영의정 겸 세자사의 증직(贈職)을 더 하였다.

증정경부인 평산신씨(平山申氏)는 상서원 판관 승연(諱 承演)의 따님이며, 좌의정 자수(諱 自守)의 증손녀이고, 제정공(齊靖公) 효창(諱 孝昌)의 고손인데, 아름답고 뛰어난 덕이 있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킴으로써, 국가에 크게 공헌한 인재를 배출시킨 모범적인 어머니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 항상 이르기를 “과부의 자식은 남이 더붙어 사귀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으니, 반드시 학문에 열 감절을 더 부지런히 하여서 너의 집명성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였다.

성종 경자(1480)년에 탄생하여, 중종 갑신(1524)년 1월 25일 서거하니, 향년 45세로 공과 합장(合葬)하였으며 슬하에 2남을 두었다. 항상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어질고 강한 어머니가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선조님들이 가신 흔적을 우리 후손들은 환하게 밝혀 놓아야만이 가르침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새기고 또 역사 속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문경공파 정재공종회 총무 덕수記

광천부원군파종회

■ 광천부원군파종회 2023년도 제2차 임원회의 개최

광천부원군파 종회(종회장 성호)에서는 2023년도 제2차 임원회의를 2023년 10월 19일에 개최하였다.

다변화하는 국내 정세에 맞추어, 종회의 현안과 운영사항의 전반적인 문제와 의제를 논의하며, 현 상황에 대한 검토와 좋은 의견을 제시받는

자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원 근거리에서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며 종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날 특별히 결정을 짓고 결론을 내야 하는 안건은 아니었지만 종인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 회의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지고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 12시 30분경 폐회 선언으로 회의를 종료하고, 자리를 이동하여 강동구 서초면옥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종친간에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환절기에 임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바란다는 성호 회장의 건배사로 회식은 무르익었고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요즘 정감 넘치는 회식을 끝으로

오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광천부원군파 총무이사 종두記



2023년도 제2차 임원회의

광원군파종회

■ 광원군파 종회 성남소재 선조묘소 성묘

계묘년 추석을 맞이하여 광원군파 종회(회장 용철)에서는 10월 13일(금),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영면해 계신 광원군(諱 克墩) 선조의 묘소와

아들인 감사공(諱 世貞) 묘소, 도정공(諱 世綸) 묘소, 충민공(諱 尙安) 묘소를 각 지파 종회장파 집행부 임원이 함께 추석 성묘를 다녀왔다.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총무 응재, 재무 용춘, 용식 전 종회공종회장, 감사공종회 석래, 용윤 현종, 도정공종회 종찬회장, 도정공종회 총무 택재, 용각 도정공종회 전례, 종삼 충민공종회 회장 충민공종회 찬수 총무, 충민공 종손 금수, 종찬 현종 등, 10명이 조상님들의 음덕을 기리며 성묘를 하였고, 이후 근처에 있는 태능갈비 식당에서 음복과

식사를 하며 선조에 대한 이야기 등 종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광원군파 종회 성남소재 선조묘소 성묘

좌의정공파종회

■ 한음상공 불천위제 봉행



한음상공 불천위제 봉행

좌의정공파종회(회장 충교)에서는 2023년 10월 9일 11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한음상공(諱 德馨) 재실 쌍송재에서 상공 서세 410주기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충교 회장을 비롯하여 외빈으로 포천 용연서원 양재환 이사, 내빈으로는 대종회 주영 회장, 용두 상임부회장, 충희공종회 경래 회장,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광

릉부원군파종회 봉수 회장, 문경공파종회 경수 회장, 광천부원군파종회 성호 회장, 광원군파종회 용철 회장,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 대종회 전결재 총무이사, 충희공종회 용식 전 회장, 독립유공자 유족회 용위 회장, 송덕재공종회 상훈 회장, 동고종회 근배 회장, 경기남부청장년회 종우 회장 외 본·방손 80여명이 참석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불천위제를 봉행하였다. 한음상공의 불천위제는 매년 양력 9월 9일 한글날로 정하여 봉행하고 있다. 본래 제례일은 음력 10월 9일이지만 많은 후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휴일인 10월 9일 한글날로 모시게 되었다. 공의 숭고하신 얼을 받들어 후손된 하나의 마음으로 봉행하였다. 평소 제사상에 전(煎)도 올리지 마라 하셨을 정도로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다. 제례 후 참례자들은 두물머리 연꽃마을로 자리를 옮겨 「버섯 사부샤브」로 풍성한 점심을 곁들여 종친 간에 덕담을 나누면서 격의없는 대화에 웃음꽃이 만발한 하루였다.

공의 휘는 덕형(德馨)이고 자는 명보(明甫)이며

호는 한음(漢陰) 또는 쌍송(雙松) · 포옹산인(抱雍散人)이다. 명종 16년(1561) 한성부 남부 성명방(誠明坊 : 지금의 남대문과 필동의 사이)에서 아버지 지중추부사공 민성(諱 民聖)과 영의정 유전(柳堧)의 누이동생인 어머니 유씨(柳氏)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 광해 5년(1613) 53세를 일기로 서거하였다. 공은 선조 13년(1580) 별시문과에 19세로 급제하고 승문원에서 관직을 시작하여 이조정랑을 거쳐 직제학에 초배되고 동부승지, 우승지, 대사간, 부제학, 대사성, 이조참판, 예조참판, 형조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에 오른 뒤 선조 31년(1596) 38세에 우의정에 오르고 같은 해 10월 좌의정에 제수되었다. 이후 선조 34년(1601) 영의정의 대배를 받으니 그해 나이 41세였다. 이 밖에도 영의정을 두 번이나 역임했으며 훈련도감과 도제조, 충청, 전라, 경상, 강원도 도체찰사로 활동하였다. 공은 문무를 겸비한 정치가이자 외교관이다. 공은 문형(文衡)으로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을 역임한 대학자로 우리 가문에 큰 영광이라 할 수 있겠다. 백사 이항복 선생이 묘지명을, 대제학 용주 조경 선생이 신도비문을 지었다.

관찰사공종회

■ 관찰사공 종회 추석 성묘

각 가정에서 추석을 보내고 연휴가 끝난 뒤, 관찰사공 종회(회장 재석)에서는 10월 10일 9시 30분, 참판공파종회, 좌통례공파종회 종회원들과 하남 시조비 묘소에서 만나, 시조비위묘전에 준

비한 제수(祭需)를 진설하고, 정성껏 참배(參拜)를 올렸다. 이어 일행은 성남시로 이동하여, 둔촌선조(遁村先祖) → 청백리공(諱 之直) → 관찰사공(諱 禮孫) → 예조참판공(諱 英賢) → 참판공(諱 克基) 선조의 묘소에 제수(祭需)를 올리고 참배를 드렸다. 선조의 묘역 내를 두루 살펴보고, 송조(崇祖)의 예(禮)를 다하니,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참배일정(參拜日程)을 마친 후, 산소관리에 대한 토론(討論)을 하면서, 늦은 점심 식사를 하였다.



관찰사공종회 선대묘소 성묘

■ 관찰사공종회 화수회 한마음 아유회 다녀오다

광주이씨 관찰사공종회 화수회(회장 재석)는 10월 13일 철원 주상절리 등을 찾아 아유회를 다녀왔다. 9시 정각 관찰사공종회 화수회 회장, 고문 그리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대종회 화수회 용두 부회장 등 총 39명이 집결지 휘경동 광리회관 앞을 출발하였다. 일행은 두 시간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데크길과 약간의 계단길로 조성된 주상절리길을 여유있게 관광하였다. 95세 광재 현종을 비롯하여 전원이 완주 한 후 한탄강 맛집 임격정 가든에서 매운탕으로 맛있게 점심식사를 하였다. 오후에는 마침 인근에서 개최하고 있는 꽃 축제를 찾아 힐링하고, 오고 가며 흥겹게 지내다가 6시경 회관 앞에 도착하여 각자 집으로 향하였다. 일가 친척들과 정겹고 행복한 하루를 보낸 한마음의 아유회였다.

- 관찰사공종회 총무 종우 기



관찰사공종회 화수회 한마음 아유회

좌통례공파종회

■ 문익공(諱 元禎) 불천위제 봉행



문익공(諱 元禎) 불천위제 봉행

2023년 10월 5일(음 8. 21) 오후 7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625번지 귀암종택에서는 문익공(諱 元禎) 선조 불천위제가 봉행되었다. 제례는 사당(祠堂)에서 신주(神主)를 모시고 나오는 출주례(出主禮)를 시작으로, 안채 대청에 신주봉안(神主奉安)을 마친 후 강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첨작례, 유식례, 사신례, 납주례(納主禮, 신주를 사당에 모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출주례와 초헌에는 필주 귀암공 13대 종손, 아헌에 대

종회 용두 상임부회장, 종헌에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이 헌작했으며 집례에는 수생 관기종회 회장, 좌·우 집사에 수덕 칠곡종회 총무, 태동 영천 시조묘소수호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수고해 주었으며 봉주, 봉축, 봉로에 택후, 순진, 익주 등 동산재 모임인 돈의계 청년들이 맡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봉행되었다. 서울에서는 대종회 용두 부회장 및 주흥 재무이사, 관찰사공종회 재석 회장, 참판공파종회 선래 회장, 본 손인 택수 좌통례공파종회 회장, 관찰사공종회 성환 감사, 종우 총무, 진호 재무, 참판공파종회 용 총무, 좌통례공파 용주 총무 등이 참석하였으며 본 손으로는 호순 독립유공자 유족회 총무, 현주 현종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대구 칠곡 등에서 참석한 본 손 종인들과 함께 약 50여명이 제례를 봉행하였다. 제례를 마친 종인들은 모두 사랑채에 모여 음복과 덕담으로 종인 간 화합과 승조 돈독의 시간을 가졌다.

문익공의 자는 사징(士徵)이고 호는 귀암(歸巖)으로, 아버지는 증 좌찬성 도장(諱 道長)이며, 어머니는 판중추부사 충익공(忠翼公) 김시양(金時讓)의 딸이다. 정구(鄭逵)의 문인이며, 큰 학자였던 할아버지 공조참의 석담선생(諱 澗雨)에게 수학하였다. 1648년 사마시를 거쳐 1652년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검열·교리를 지내고

1660년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이듬해 동래부사가 되었다. 1670년 다시 청나라에 사은부사로 다녀왔으며, 도승지, 대사간, 형조 판서를 지냈다. 六曹를 두루 역임하고, 1680년이 조판서로 있을 때에 경신대출척으로 초산에 유배가던 도중에 불러와, 향년 59세에 원통하게도 참화(慘禍)를 당하였다.

그 후 숙종은 잘못된 일이었음을 누우치고, 크게 한탄하였으며, 1688년 기사환국 후 사제문(賜祭文)을 내리고,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하고, 시호를 문익(文翼)으로 내렸다. 공께서 저술한 완부결송록(完府決訟錄) 2권, 경산지(京山志) 2권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귀암문집(歸巖文集) 12권이 간행되었으며, 많은 서책들이 종가에 전해 내려와, 지금은 보관상의 이유로 서울역사문화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는데, 정재공(靜齋公, 諱 聃命)은 이조참판을, 둘째 한명(諱 漢命)은 교리(敎理), 셋째 귀명(龜命)은 찰방(察訪)을 지냈다. 또한 공의 집안은 4대 한림가문(翰林家門)으로도 유명하네, 그 세계는 1代 石潭公(諱 澗雨)→2代 洛村公(諱 道長)→3代 歸巖公(諱 元禎)→4代 敎理公(諱 漢命)이다.

광주이씨 좌통례공파 칠곡종회 총무 壽德記

목사공파종회

■ 목사공파종회 목사공(諱 之柔) 묘역 정비

목사공파종회(회장 춘신)는 올해 목사공 세일사 봉행을 앞두고, 10월 14일 목사공 묘역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춘신 종회장의 목사공 묘역에 후손된 도리를 다 하자는 주선에 모든 종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 경기도 하남시 항동(고골)에 위치한 목사공 묘역은 경사도가 많은 산지이다. 이 관계로 진입로에 석재로 계단을 조성하였으나, 일부 변형과 파손이 있어 올해 세일사를 봉행하기 전에 묘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 목사공파종회 춘신 회장과 부회장 좌운, 부

회장 범수, 대종회 사적심사위원 영균, 대종회 전 재무이사 문신, 대종회 대의원 종윤, 총무이사 종익 등 일곱명이 참석하여 묘역을 정비하였다. 공의 묘역 진입로가 경사가 있어 우천시 토사가 유실되며 석재 계단이 변형되고 일부가 파손되어 묘역의 경관을 해치고 묘역 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었다. 먼저 묘역 진입로 석재 계단의 변형과 파손된 부분을 바로 잡고 보완하면서 묘역 주변의 조경수를 가꾸는 전정작업을 진행하였다. 목사공 묘역은 배롱나무 목백일홍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꽃도 가꾸지 않으면 그 빛을 잃는다. 배롱나무와 조경수들의 전정작업을 정성껏 진행하니 마치 의관을 단정히 한 선비의 품모가 아닌가? 묘역 주변에는 잔디의 성장을 막는 억센 잡풀들이 눈을 해친다. 한 포기, 한 포기 손으로 억센 잡풀 뿌리를 제거하며 올해 세일사 봉행을 준비하였다. 목사공 묘역은 3기 하남 교산신도시 건설 용지로 재실이 수용되어 철거되고 있어

제구 보관이 당장 어려운 과제이다. 참석한 종원들과 소박하게나마 재실을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 일정을 계획하기로 하였다. 세일사 봉행을 위한 묘역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고 10월 15일 묘역 2차 벌초까지 마무리하였다. 2023년 목사공 선조 세일사는 11월 19일 일요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다.

- 목사공파종회 총무이사 종익記



목사공파종회 임원진 묘역정비를 마치고

광이(廣李) 독립유공자 유족회 유적지 탐방기

광이 독립유공자 유족회에서는 전남 보성군 일원 독립유공자 유적지 및 양진재공(養眞齋 諱 秀堯) 후손 집성촌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23년 10월 30일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 지나고 본격적인 단풍계절이라 출발지인 서초 구민회관 앞 정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에 제각각 탑승하여 출발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용위 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회원들도 인사를 주고 받으며

예약된 버스에 탑승 8시에 출발하였다. 중간 기착지인 보성읍 봉산리 점심식사를 하기로 약속된 청광 도예원(한정식)에 도착하니 시간은 벌써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다. 회원 중 보성탐방 안내자를 자칭한 덕규(秉昊公의 손자) 회원과 양진재공파 종회 용도(보성군재향군인회 회장) 총무가 미리 마중을 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고풍스러운 식당 예약자석에 앉아

서로 간 인사를 나누고, 푸짐하게 한정식으로 준비된 식사를 하고 금일봉을 전해준 양진재공종회 용호 회장과 총무, 그리고 함께 해 준 종원들께 감사함을 전하였다.

식사가 끝나고 용도 총무의 제안으로 차밭이 훤히 보이는 보성역사문화관 북재 카페에서 녹차 대접을 받고 함께해 준 종원들과 헤어졌다. 우리 일행은 두 번째 찾아보기로 한 보성군 옥안리에 위



독립유공자 유족회 보성지역 탐방

치한 「李白來 선생 추모비」를 참배하고(광주이씨회보 6월호에 공적 내용을 홍보한 바 있음) 다음 목적지인 오봉리 강골마을 열화정(悅話亭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한다라는 뜻이며, 이곳은 또한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고택(古宅,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에 도착하여, 거주하는 종관(오봉청석유물관 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보성협의회

회장) 현종의 이해하기 좋은 설명을 들었다. 바쁜 일정을 이유로 다음 목적지인 봉천리 당촌 마을(복내중학교 정문) 병호(秉昊,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애국지사의 동상에 참배하고, 손자인 덕규 유족회 회원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참배가 끝나고 이병응(호 금남) 선생의 금남고택을 방문하니 현손(玄孫) 종걸 현종이 주변을 잘 복원 정비하여 작년에 전라남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자리를 옮겨 조성면 대곡리 한실마을 매월당(梅月堂)을 방문하니 감사공(諱世貞)이 전라도 관찰사로 왔을 때 아들 양진재공을 대동하고 조성 대곡마을 앞을 지나다가 「이곳은 들이 넓고 기후가 따뜻하며 탁트인 바다가 있어 참으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라고 하셨다는 얘기가 전해오는데

이로 인해 훗날 양진재公께서 이곳에 집터를 잡으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짐작되었다.

광주이씨 보성 입향조(入鄕祖)인 양진재公(諱秀堯, 通訓大夫 內膳寺 判官)은 나이 30세(1529)에 長子 유형(惟亨)을 대곡에서 낳았다. 을사사화가 일어나 다시 나라가 혼란하므로, 11년 동안의 벼슬을 버리고 대곡마을로 내려와 터를 새로 잡아 집을 짓고 당호를 양진재(養眞齋)라 하였으며 이를 또 본인의 호(號)로 삼았다. 집 동쪽에는 매월당(梅月堂)을 짓고 학문에 힘썼으니 때로는 퇴계 선생과 경(經)과 예(禮)를 논하기도 하였다. 수남리 묘소 아래에 위치한 재실 영모재(永慕齋)는 내부를 수리중에 있었으며 매년 음력 10월 10일 세일제(歲一祭)를 모신다고 한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시간을 쪼개 복내면 봉천리 애국지사 이병화(李秉華) 선생 추모비를 찾아 참배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애석하지만 먼 곳에서 바라만 보고 禮를 갖추었다.

- 광이 독립유공자 유족회 총무 호순 기

애국지사 만산 이이익(愛國志士 晩山 李以翊) 선생

광이 독립유공자 유족회 이달의 애국지사는 칠곡 출신인 이이익(李以翊) 先生이다.

先生은 좌통례공(左通禮, 諱克堅)의 13代孫이며 자는 맹기(孟棋), 號는 만산(晩山), 현감공(諱仁符)의 11代孫이다. 아버지 태운公(泰運)과 어머니 인동장씨(仁同張氏) 용익公(龍翼) 따님과 長子로 1868년 4월 26일 칠곡의 심천 향제(漆谷 深川 鄉第)에서 탄생(誕生)하였다. 先生께서는 구한말(舊韓末)에 학문(學文)과 지절(志節)이 높아 시대의 존경(尊敬)을 한 몸에 받고 망(亡)해 가는 조국(祖國)을 걱정하였다. 기미(己未) 3. 1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파리(프랑스) 만국평화회의(萬國

平和會議)에 자주독립(自主獨立)을 호소하는 독립청원서(獨立請願書)에 서명한 전국 유림(全國儒林) 대표 137人的 한 분이다.(한국유림 독립운동파리장서 사건(韓國儒林獨立運動巴里長書事件)이다) 영남 유림(嶺南儒林)에서는 곽종석(郭鍾錫), 장석영(張錫英), 송준필(宋俊弼), 김창숙(金昌淑) 송규선(宋圭善) 등이 주축(主軸)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4월 2일 성주(星州) 장날에 만세운동으로 장서(長書)에 서명(署名)한 장석영, 송준필, 성대식 등이 피체(被逮) 당하고 외국 공판 및 국내 항교에 발송한 장서 원본이 도착하면서, 일경(日警)

의 검거 선봉에 先生께서도 왜경(倭警)에 피체(被逮)되어 대구와 전주 감옥에 수감하고 고문과 갖은 악행을 자행하였으며 노령으로 병세가 심한 先生은 11개월의 옥고를 치루고 출옥하였다. 영어(囹圄)에 풀려 난 先生은 자



만산 이이익 선생 유고집

택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칩거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1935년 3월 12일 향년 67세로 한(恨) 많은 생을 자택에서 영면(永眠) 하였다. 先生의 인품(人品)이나 고절(高節)한 애국심(愛國心)과 비할 바 없는 도덕이나 학문이 한학의 시서(詩書)에 조예(造詣)가 깊었으며, 만사(輓詞), 서간문(書簡文), 시문(詩文) 등 많은 저술(著述)을 모은 만산선생문집(晩山先生文集)을 남겼다.

정부는 先生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先生의 뜻과 공적(功績)을 새긴 추모비(追慕碑)는 칠곡 왜관의 애국동산(愛國東山)에 세워져 있고, 서울 장춘단 공원, 대구 달성 공원에 세워져 있는 한국유림 독립운동파리장서비(韓國儒林獨立運動巴里長書碑)에 先生과 136人的 명단이 새겨져 있다. 묘소는 대전 현충원(4-323호)이다.

- 系譜는 좌통례공 13대손 만산(以翊) - 용연(龍淵) - 상일(相駟) - 지환(智煥 010-2525-1517)이다.

- 유족회 총무 호순 기



만산 이이익 선생 추모비



한국유림독립운동 파리장서비

광주, 전남 종친회원 칠곡 유적지 순례 답사

지난 10월 17일, 국화 향기 그윽한 청명한 가을에 광주·전남종친회 회원들은 문화 유적지 순례길에 나섰다. 장소는 우리 광주이씨 집성촌인 경북 칠곡군 지천면과 왜관읍 매원마을이다. 광주·전남종친회 주관으로 금채(錦采) 회장의 인솔하에 광주역에서 종인 35명이 모여 관광버스편으로 오전 8시 40분경 출발하였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친형제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설렘과 기쁨으로 들떠 차창에 스쳐가는 가을 풍치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함이라. 가는 도중에 차안에서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칠곡 입향조 승사랑공(諱 攀)의 행적과 그 후손들의 업적에 대한 금채 회장의 설명이 있었다. 특히 승사랑공의 고손인 석담(諱 澗雨) 선생의 치적과 26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으로 영남 3대 반촌(班村) 광주이씨 이운우의 칠곡 매원마을, 풍산류씨 서애 류성룡의 안동 하회마을, 여주이씨 회재 이언적의 경주 양동마을에 들게된 연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오전 11시 40분경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참숯 한우명가」 식당에서 숯불구이 식사를 하였다. 이 식당의 주인은 우리 보성 종인인데 당촌마을이 고향인 종걸(鍾傑)씨로 일찍이 이곳 구미에 정착하여 「보성전자」라는 간판으로 공장을 운영하며 이 식당도 함께 운영해 오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 일행이 칠곡에 간다는 말을 듣고 수일 전부터 미리 연락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여, 오늘 이렇게 푸짐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우리 일행을 칠곡 예정지로 인도해 주니 정말 고맙기 그지 없다. 아무쪼록 하시는 사업 일취 월장하시길 바란다. 처음 방문지는 칠곡군 지천면 상지마을 석담(諱 澗雨)공의 종택 및 사당이다. 종택의 종손인 병구(炳求) 박사 외 두 분이 미리 나와서 환영해 주고 함께 사당을 찾아 주, 과, 포를 올리고 참배하며 광주·전남종친회 방문을 고향이 감회가 새롭다.

먼 길이라 시간이 부족하여, 석담선생을 배향하고 있는 사향서원과 승사랑공 묘소 및 첨모재는 참배하지 못하고 왜관읍 동산리 석전마을로 차를 이동하여, 귀암 문익공(諱 元禎) 종택을 찾았다. 문익공은 좌통례공(諱 克堅)의 7세손으로 호는 귀암(歸巖)이며 효종 3년(1652)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도승지 4번, 대사성 7번, 공조, 형조, 호조, 이조판서를 두루 거쳐 판의금부사, 홍문관 제학을 역임하였다.

2차 예송논쟁(禮訟論爭) 당시 남인의 영수인 영의정 허목과 함께 수장(首長)으로 활동하였다. 숙종 6년(1680) 경신환국(출척) 당시 서인(영수 송시열)의 공격을 받아 유배지로 가던 도중 체포되어, 형문을 받던 중에 서거하였다. 귀암종택에 도착해서는 석담공 종중에서 수상 회장이 반갑게 인도하여 탐방 답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어서 감호당과 박곡(諱 元祿)종택으로 인도해 주었다. 감호당은 석담선생이 벼슬을 마치고 치사(致仕)하면서 셋째 아들인 휘 도장(道章)공에게 물려주었으며 도장공은 자기 號로 삼아 감호당이라 하고 과거에 뜻을 두지않고 오로지 후진 양성에 매진하였다. 남기신 글도 많으려만 집안 화재로 인하여 모두 불타고 없으니 아쉬웁기 그지 없다. 다만 공이 남긴 시가 감호당에 주련(柱聯)으로 남아 있다.

당(堂)에는 「鑑湖堂」이라고 예서체로 쓴 영의정 허목의 현판이 걸려있다. 동쪽 방은 무침실(無衾室)이라 하고 서쪽 방문을 불괴문(不傀門)이라 하였으니, 남에게 욕됨이 없고 부끄럼이 없이 살라는 뜻이라. 거울같은 호수(鑑湖)의 물빛과 달빛이 비추는 집, 물처럼 맑고 달처럼 밝게 사는 집이라는 뜻으로 水月軒(수월헌)이라는 액자도 걸려 있다.

박곡(朴谷) 종택은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을 역임한 원록공(諱 元祿)의 종택으로 당시에는 안채가 12칸, 사랑채가 8칸, 광채가 3칸, 대문채가 5칸과 중문채, 불천위로 모시는 사당이 있어 규모가 대단히 웅장하여 한때 매원 초등학교로 임시 사용했던 건물이었으나, 6.25동란 당시 인민군이 여기에 주둔하여 미군의 폭격으로 거의 소실되고, 현재의 종택은 1988년 신축복원 하였다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랴?

이곳 왜관읍에는 이외에도 낙촌공, 귀암공, 정재공 3대를 모시는 재실인 동산재(東山齋)와 묵헌공(諱 萬運)의 종택 및 사당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참배(參拜)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

쉽다. 이곳은 나라에 큰 공이 있어 불천위로 모시는 분이 4분이요. 한림학사가 4분이며, 문과 급제자가 26분이 계시는데 25분이 석담 후손이라고 하니, 가히 영남 3대 반촌(班村)에 드는 것이 당연함이라.

매원마을은 2023년 6월 15일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최대 번성기인 1905년경에는 400여 채의 집이 있었으며 인구도 1000여 명이 살았다고 하나 6.25동란 당시 가옥이 대부분 소실되고 현재는 고택 60여 채와 근래에 신축한 건물을 포함하여 180여 호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 우리 일가 마을이라 하니 기쁜마음 한량없다.

오후 4시가 넘어 갈 길이 먼지라 아쉬운 문화 탐방을 마치고, 광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모두 헤어졌다. 오늘의 문화 탐방을 위해서 추진하고 준비하신 금채 회장과 형식 사무국장, 여비(旅費)찬조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칠곡의 병구(炳求) 박사와, 석담 종중 수상 회장, 구미 「참숯 한우명가」 종걸 사장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광주·전남종친회 문화유사 응정記



광주·전남종친회 칠곡지역 문화유적 성지순례

주영 대종회 회장 전쟁기념관에서 용산특강 하다



대종회 주영 회장 용산 특강을 마치고

2023. 10. 20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1층 이 병형홀에서는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 주관 <용산특강> 제3강이 성황리 개최되었다.

이날 특강의 강사로 주영 광주이씨 대종회 회장(전 국회부의장)이 ‘한미동맹 7주년 한미 동맹의 미래’ 를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강연에는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영 대종회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미관계

의 역사와 함께 한미동맹이 가야할 길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미동맹이 안보·경제·기술·문화·정보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반도 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는지’, ‘북한의 핵 위협에 관해 어떤 의견인

지’ 등 청중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일일이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방청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의 교훈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용산특강>을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5일에는 본문 수성 전 총리께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강연한 바 있다.

대종회 주관 선조님 세일사 봉행계획 알림

2023년도 대종회 선조님 세일사 봉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일사 봉행시간

- 영천 시조위 :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2시경
- 하남 시조비위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1시
- 성남 둔촌선조 : 2023년 11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 성남 청백리공 : 2023년 11월 17일(금) 오전 11시 30분

● 기타

- 코로나 19사태의 진정에 따라, 참석자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예년과 같이 후손 누구나 함께할 수 있음.
- 영천 시조위 세일사 봉행을 위해 대종회에서 버스를 임대하여 운행함

- 출발일시 : 2023년 11월 14일 아침 7시 20분 (정시 출발)

- 탑승장소 : 지하철 2호선 및 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버스 공영주차장 내)

- 기 탑승 신청하지 않은 종인은 지파 또는 대종회(02-735-1720)로 신청하기 바람(조기 만석될 수 있음)

· 하남 시조비위 세일사 봉행에는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람.

· 제례 봉행후 식사는 공히 도시락으로 제공할 예정임

충주시역 독립운동가 합동 위령제에 참석하다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국보 6호) 공원내에, 충주 출신으로 일본에 빼앗긴 국권과 조국을 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지푸라기와 같이 여겨, 조국의 수호신으로서 목숨을 바친, 거룩한 애국선열 66명의 혼을 모신 위령탑과, 공적비가 세워져 있는바, 그중 광주이씨 광원군파 도정공계 후손인 이병철 선선생의 공적비도 세워져 있어, 충주 광복회(회장 윤경로)에서 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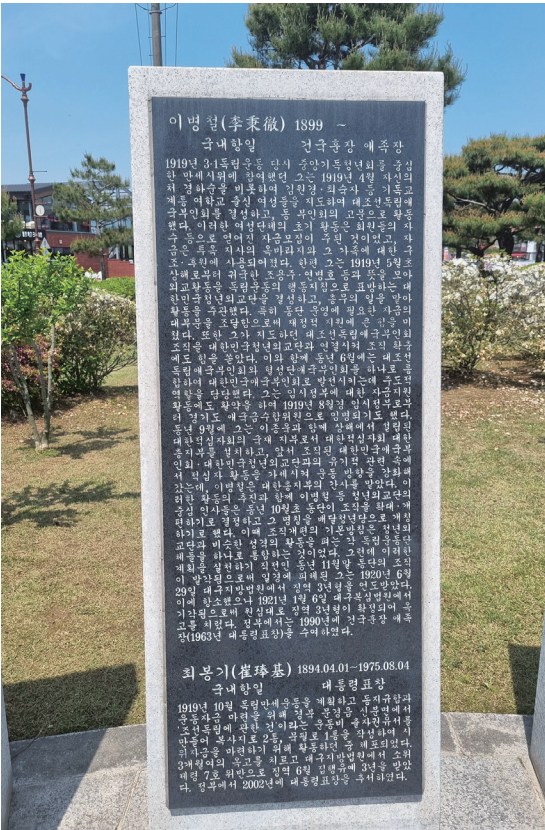


10월 30일 오전 11시에 위령제를 봉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광원군파종회 회장 용철, 도정공회장 종찬 총무, 택재 부부, 전례유사 용각, 도화회 회장 용식 및 총주 현지에서 도의회 부의장 용갑 현종, 문경공 광희 21대 종손 등 8명이 참석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의 원혼을 달랬다. 독립운동 당시 자금 모집책이었던 병철 선생은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3년의 옥고를 치르고, 일경의 요주의(要注意) 인물이 되어 가족 모두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여 독립운동 중 행방불명되었으며, 후손이 없어 향후 도정공종회 차원에서 위령제에 참여하여 관리키로 하였으며, 공적을 추적하던 중 선생의 처남의 손자(정태준 : 연일씨재 대중회 회장 역임)를 만나, 서

로 조사한 것을 대조하는 등, 여러 차례 검토 확인 하였으며, 선생의 장인 묘소에 도정공에서 참석한 종인들이 참배하였다. 이에 정태준씨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현제 도 선생의 행적에 대하여 추적 조사 중에 있어,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선생의 공적에 대하여 분량에 따라 3~4회 회보에 연재할 예정이다.

독립운동가 이병철 선생 위령제 참석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중앙기독교청년회를 중심한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그는 1919년 4월 자신의 처 경하순을 비롯하여 김원경·최숙자 등

기독교 계통 여학교 출신 여성들을 지도하여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를 결성하고, 동 부인회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초기 활동은 회원들의 자수 등으로 얻어진 자금모집이 주된 것이었고, 지금은 투옥 지사의 옥바라지와 그 가족에 대한 구조·후원에 사용되어졌다.

한편 그는 1919년 5월초 상해로부터 귀국한 조영주·연병호 등과 뜻을 모아 외교활동을 독립운동의 행도지침으로 표방하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을 결성하고, 총무의 일을 맡아 활동을 주관했다. 특히 동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에 큰 힘을 미쳤다.

또한 그가 지도하던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 조직을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연결시켜 조직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동년 6월에는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와 혈성단애국부인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로 발전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임시정부에 대한 자금지원 활동에도 활약을 하여 1919년 8월경 임시정부로부터 경기도 애국금수합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동년 9월에 그는 이종욱과 함께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적십자회의 국제 지부로서 대한적십자

회 대한총지부를 설치하고, 앞서 조직된 대한민국애국부인회·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적십자 활동을 가세시켜 운동 방향을 강화해 갔는데, 이병철은 대한총지부의 간사를 맡았다.

이러한 활동의 추진과 함께 이병철 등 청년외교단의 중심 인사들은 동년 10월초 동단이 조직을 확대·개편하기로 결정하고 그 명칭을 배달청년당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이때 조직개편의 기본 방침은 청년외교단과 비슷한 성격의 활동을 펴는 각 독립운동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직전인 동년 11월말 동단의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일경에 피체된 그는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언도 받았다.

이에 항소했으나 1921년 1월 6일 대구 복심 법원에서 기각됨으로써 원심대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병철(李秉徹) 1899~
국내항일·건국훈장 애국장

제8회 둔촌문화제 개최 안내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광주이씨 대중회가 후원하는 제8회 둔촌문화제가 11월 18일 성남소재 추모재 및 성남시청 온누리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성남문화원은 둔촌 선생의 충절심과, 끈은 선비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유-튜브 및 성남 지역 신문 「뉴스공간」 등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여 왔다. 이날은 광주이씨 최초의 재상이며 다섯 분의 봉군(封君)을 길러내신 충희공(諱仁孫) 선조의 세일제를 봉행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소 섭외와 행사 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같은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광주이씨 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

- 행사일자 : 2023. 11. 18
- 제1부 행사 : 10시 30분부터 추모재에서 추도 참배식 및 헌화례
- 제2부 행사 : 오후 2시부터 성남시청 온누리 대강당(1층)에서 시(詩), 무(舞), 악(樂) 등 본 행사
- 참석범위 : 둔촌문화제를 참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10월 구독 및 찬조			문경공 준암장손 판결사공파 하북문중 10,000×16=160,000원		
이원환	20,000	경북 예천	이 학 수	10,000	경기 과천
이수현	10,000	서울 노원	이 종 화	10,000	경기 평택
이시재	10,000	광주 남구	이 종 세	10,000	서울 금천
이수육	20,000	대구 달서구	이 종 권	10,000	충남 아산
이광수	10,000	경기 평택	이 화 수	10,000	서울 금천
이혜숙	10,000	경기 용인	이 길 수	10,000	경기 평택
이용완(종식)	10,000	대전 유성	이 주 천	10,000	경기 평택
이병후	10,000	경기 이천	이 종 천	10,000	인천 미추홀구
이현래	10,000	경기 이천	이 종 엽	10,000	경기 수원
이준희	10,000	인천 중구	이 종 덕	10,000	경기 화성
이순자	20,000	서울 관악	이 관 수	10,000	충북 음성
이근익	10,000	경기 하남	이 정 수	10,000	경기 성남
이창수	20,000	서울 관악	이 문 수	10,000	경기 수원
이종태	10,000	경북 안동	이 장 수	10,000	서울 영등포
이덕규	10,000	전남 보성	이 권 수	10,000	인천 서구
			이 동 수	10,000	서울 구로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인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종인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10,000원 입니다.

기업은행 : 024-098339-04-112

농협은행 : 301-0290-6787-91 광주이씨 대종회로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 번호 MICR 7533004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로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성명과 지역을 적어 보내시거나 (예 : 홍길동 서울 또는 홍길동 종로)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종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23年 11月 1日

<제393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 李 柱 榮

編輯人 : 李 容 頭

主 幹 : 李 柱 暲

發行處 :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